

민주·인권·평화 '5월 정신' 품은 공간으로 거듭나야

아특별 통과 이후의 과제

<하> 옛 전남도청 복원 마무리

국립아시아문화전당(문화전당)은 '5·18민주화운동'이 품고 있는 인권과 평화 의미를 예술적으로 승화해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배경에서 출발했다. 또한 교류와 연구, 창·제작, 교육을 통해 아시아문화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고 창조적 역할을 증진시키는 취지도 담고 있다. '세계를 향한 아시아 문화의 창'은 단순한 선인적 가치를 넘어 광주정신을 모티브로 5·18 민주화운동 가치를 국내외에 전파한다는 의미를 포괄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아특별 개정안) 통과는 향후 문화전당 정상화와 함께, 내부 주요 시설인 옛 전남도청의 복원을 어떻게 완료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와도 직결되는 사안이다. 이에 따라 옛 전남도청은 역사성과 상징성, 가치성을 토대로 5월 정신을 계승하는 역사적 공간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화정보원·민주평화교류원·문화창조원·예술극장·어린이문화원 등 문화전당의 5개원 가운데 핵심 시설은 5·18민주화운동 최후 항쟁지인 민주평화교류원(옛 전남도청)이다. 광주정신이 깃든 문화를 가장 의미 있게 구현하고 전 세계와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대표 공간이다. 따라서 도청 복원은 역사적 진실을 기억하고, 희생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추모할 뿐 아니라 민주와 인권, 평화의 가치를 계승하는 공간으로 구성돼야 한다는 게 지역사회의 주문이다.

그러나 당초 내년 말로 예정됐던 복원사업이 2년 가량 늦어질 전망이다. 복원사업이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원형 복원에 필요한 공

전 세계와 콘텐츠 공유할 대표 공간
공사비·탄흔 조사·원형 보존 요구
당초 계획보다 2년 가량 늦어질 듯
사진 등 DB 구축 콘텐츠 활용 계획

사가 늘어난 때문이다. 이 같은 사업 일정을 감안하면 2024년 하반기에나 복원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옛 전남도청복원추진단(추진단) 등에 따르면 추진단은 현재 도청 복원사업 총사업비를 늘리기 위한 타당성 재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9월 복원사업에 필요한 사업비가 당초 예상(254억7600만원)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기재부에 143억6500만원 상당의 사업비 증액을 요청한 상태다.

기재부는 사업비가 20% 이상 늘어난 부분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했으며 재조사 결과는 오는 9월이나 10월 중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은 당초 확보된 전시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제거했던 경찰국 건물 내 층간 구조물을 5·18 관련 단체 등이 80년 당시 경찰국 건물의 원형 보존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추진단은 항쟁 당시 총탄자국으로 추정되는 흔적들이 다수 발견돼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다. 5·18단체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에서 옛 전남도청 건물 총탄 흔적 조사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데 따른 조치다. 탄흔까지 보존해 옛 전남도청 건물 원형을 최대한 복원하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추진단은 최종적으로 확인된 내용을 오는 4월 중 보고회를 열어 설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추진단은 그동안 사실에 입각한 복원을 위해 다양한 자료를 발굴해왔다. 사진과 영상, 당시 전남도청 근무자 등의 증언 등이 주요 자료



아시아문화전당 내 민주평화교류원(옛 전남도청)은 광주정신을 모티브로 5·18민주화운동의 가치를 국내외에 전파하는 중요한 공간이다. 사진은 옛 전남도청.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다. 또한 건축 및 미술기법에 사용하는 투시도법, 1976년부터 1983년까지 건물 내부 공간의 변화 모습 분석, 증·개축 및 구조변경 설계 도면 검토 외에도 당시 도청 주변 시설물에 대한 원근 분석을 통해 80년 전남도청 모습을 일부 찾아내기도 했다.

특히 추진단은 확보된 사진자료에 대한 DB화를 구축하고 그 중 일부는 고도화 작업을 통해 복원콘텐츠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문가 수작업, 인공지능에 의한 고도화 작업 등 다양한 방법을

비교분석해 자료의 국가 자산화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향후 옛 전남도청 복원이 완료되면 5·18민주화운동 정신과 가치를 담아, 공간, 치유 등 프로그램으로 개발해 미래세대 교육체험 장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80년 당시 상징성 있는 공간을 중심으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 구현하되 공사 진행 중에도 자료 수집을 집중받아 현장 검증을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자료 부족으로 당시 상황을 제대로 구현할

수 없을 시에는 자료 확보, 검증 후 구성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같은 지역문화교류재단에서는 "옛 전남도청 복원은 차질없이 진행돼야 하지만 결국은 문화전당 내 상존하는 공간이므로 서로 공존 상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를 토대로 5월 정신을 품은 문화전당 활성화 및 정상화로 자연스럽게 연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뉴욕타임스도 주목한 광주비엔날레 개막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비엔날레" 지면 실어... 높아진 국제 위상 반영

31일 프레스 오픈을 시작으로 4월1일부터 일반 관람객들에게 공개되는 제13회 광주비엔날레 개막 소식이 미국 뉴욕타임스 29일자 지면(사진 빨간선 내)에 실려 광주비엔날레의 높아진 위상을 실감케 하고 있다.

기사를 작성한 앤드류 러세스 기사는 "한국, 세계 예술의 무대에 오르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제13회 광주비엔날레는 세계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비엔날레 중 하나"라고 소개하며 광주 출신으로 오일 작품 등 사회적 질은 작품을 꾸준히 해온 이상호 작가 작업 현장 사진을 함께 실었다. 앤드류 러세스 기사는 지난 26일자 신문에 이상호 작가의 작품 '일제를 빛낸 사람들'과 작가에 대한 글을 실기도 했다. 29일자 기사에는 '150만 인구의 도시' 광주에 대

한 이야기와 함께 사메리즘, 치유, 억압된 역사 등 제13회 광주비엔날레의 주제, 작품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가 실렸다.

기사는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가 미뤄진 탓에) 데프네 아야스, 나타샤 진발라 등 예술감독들은 그들의 작업을 2년 넘게 진행·발전시켜오고 있다"며 "원래대로라면 지난해 9월 개막했을 이 행사 '떠오르는 마음, 맞이하는 영혼'은 4월1일 목요일 개막을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지금까지 광주 비엔날레는 세계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미술계 행사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며 "세계 미술계에서 한국이 조명받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다른 국제 전시회들이 거의 모두 지연된 가운데 한국의 비교적 성공적인 방역 상황이 이번 비엔날레 개막을 가능케 했다. 특히 두 예술감독은 팬데믹 위기를 견디고 반증하는 방식으로 고군분투했다"고 전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청와대 경제수석에 안일환 기재부 2차관

기재부 1차관에 이억원 2차관에 동신고 출신 안도걸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새 청와대 경제수석에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을 임명했다. 기재부 1차관에 이억원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2차관에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을 각각 발탁했다.

이번 인사는 전날 전셋값 인상 논란으로 경질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후임에 이호승 경제수석이 임명된 데 따른 후속 인사다. 경제라인을 신속하게 재정비해 부동산 투기 사태 등으로 어수선해진 정부 분위기를 쇄신하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안일환 신임 경제수석은 서울대 무역학과와 행정시(32회) 출신으로, 기재부 대변인·예산총괄심의관·사회예산심의관·예산실장을 거쳐 지난해 5월부터 기재부 2차관으로 활동해 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안 수석은 국가경제 전반에 대한 기획

및 조정 역량이 뛰어나 핵심 경제정책 과제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억원 신임 기재부 1차관은 서울대 경제학과와 행정시(35회) 출신으로, 기재부 경제구조개혁국장·경제정책국장 등을 지냈고 작년 5월부터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을 맡았다.

안도걸 신임 기재부 2차관은 화순 출신에 광주 동신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지역 인재다. 행정시(33회)를 거쳐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예산총괄심의관에 이어 예산실장을 지내는 등 '재정통'으로 정평이 나왔다. 특히 안 2차관은 그동안 명분과 실리의 조화를 통해 지역의 현안을 보이지 않게 해결하는 것은 물론 합리적이고 소탈한 성품으로 안팎의 신뢰가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또 국가편찬위원회 위원장에 김인걸 서울대 국사학과 명예교수를 임명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광주·전남 같이 하실분 모십니다.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062)531-3530, H .010-9229-3530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7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한번쯤 생각해 보세요!

- ☑ 허리, 엉덩이, 다리까지 아프고 저리며 통증이 있다면... **허리디스크?**
- ☑ 목을 돌려서 어깨가 아프다... **목디스크?**
- ☑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무릎이 자주 붓는다면... **퇴행성 관절염?**
- ☑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 어려워진다... **회전근개파열?**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